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강사 : 이성권
소속 :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제 : 한국의 의회, 일본의 의회
일시 : 2005. 05.31

☞세미나내용
- 일본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
부산대 졸업 후 15대 국회때 보좌관 생활을 했습니다.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자기 개발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00년 4.13 총선을 마치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석사를 마치고 돌아오자는 목표를 가지고 갔습니다. 4월 달에 들어가서 12월에 고급 과정을 독학하여, 일본어 능력 시험을 1급을 보고 6월에 와세다에 국제정치학 전공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므로 일본 정치를 느껴 보자라는 생각으로 인터넷으로 국회의원 검색, 고노 타로 라는 의원이 한일관계에 관심이 많아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1년 8개월간 일본 국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 일본과 한국의 의회
1) 통치 형태
일본: 의원내각제, 양원제(중: 4년, 25세 이상, 참: 6년, 30세 이상)
한국: 대통령제 단원제
참의원은 해산 없고 중의원은 해산이 있습니다. 즉, 중의원은 언제 선거가 닥칠지 모르므로 선거구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총리 대신의 결정권, 양원 정책 충돌 시 등에 있어서 중의원이 더 막강합니다.
2) 의원수
일본: 중 480, 참: 252
한국: 299
3) 상임위
일본: 중 20, 참 17
한국: 17
4) 주요정당
일본: 5개 (자민, 공명, 민주, 사회, 공산)
한국: 5개 (열우, 한나라, 민주, 민노, 자민)
5) 정치인 충원
일본: 세습이 많음 (자민당 33.4% 민주당 14.4%-> 세습정치인)
한국: 의원 자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

6) 보좌진
일본: 3명
한국: 6명, 그러나 6명으로도 부족.
일본 3명의 스텝을 가지고 입법 활동 불가능,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塾 : 대학원 석박사 과정의 학생, 연구원들이 모여 정책을 만들어 입법활동 시 반영, 기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7) 국회의 종류
일본: 통상, 임시, 특별: 그러나 거의 통상 의회만으로 이루어짐
한국: 정기, 임시...
8) 입법 기여
일본: 거의 관료들에 의한 입법이 주를 이루고 있음
한국: 과거 일본과 비슷했으나 점점 달라지고 있음
9) 원내 대책
일본: 국회 대책 위원회는 담합의 상징물인가?
한국: 상종가를 달리는 원내 대표
일본의 경우우 주로 자민당의 정당 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음. 국내 대책 위원회를 통해 자민당 내의 갈등 조율
한국의 경우 국회법에 교섭 단체 대표로 보장됨
10) 야당의 역할
일본: 법안을 만들 필요 없이 여당인 자민당을 보조하는 역할
한국: 법안도 열심히 만들고 이를 위해 상임위의 정수 조정을 시도하고 있음
11) 당론
일본: 당론 앞에서 한 없이 작아지는 의원
한국: 그런게 어딨어? 없긴 왜 없어!
일본의 경우 당론을 거스르는 의원의 의견 찾아 보기 힘든 편이나 한국은 그에 비해서는 의원의 자유로운 주장이 허용되는 편
12) 파벌
일본: 파벌이 없어지는 말 자민당은 무너진다
한국: 계파라도 있나?!
파벌은 일본이 굉장히 강한편. 자민당 내에 5~6개의 파벌. 자민당의 경우 일당 우위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도 파벌에 있었음
파벌 정치 된 이유: 총재 되기 위해서 리더의 목적의식 때문에 . 특히 중 대선거구제였은 경우 한 지역구 내에서 한 당 내에서 2명 이상이 나오게 되어 당의 자금 지원 필요하기 때문. 현재 소선거구제로 인해 파벌이 약화되고 있는데 현재 제도 하에서도 1명 밖에 공천 받지 못하지만 그것 위해 줄서기가 이루어 지고 있다.

Q & A

- 한국 지역 감정 타파를 위해 중선거구제 도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선거구제 개혁, 지역 감정 타파가 목표가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잘 듣기 위해 바꾸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30년 이상 중선거구제, 병폐 많아서 바꾸었는데, 한국 의 경우 대통령제 하에서 양당제 위해 소선거구제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질적인 병폐인 것은 사실이나 과거 삼김 시대의 지역 구도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구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이용한다는 것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성권 의원님, 소장파같으신데, 왜 한나라당에 입당하시게 되셨는지?

입학하자마자 운동권, 골수 운동권에서 실제로 80년대 사회주의 혁명 지향했었습니다. 북한식의 통일 전선을 따른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소련식의 사회주의 혁명 지향(비주류)했었습니다. 그러나 군대를 갔다오니 현장이 없어졌습니다. 졸업하자마자 박관용 의원 하(신한국당)에 들어 갔는데 정치를 해봐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산 정세에서 민주당 선배들 NL선배들이었기 때문에 노선이 힘들어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새천년민주당 신한국당 똑같이 보수였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보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